

국내 소식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 용자대상 넓혀

앞으로 에너지절약시설의 신·증설 대기업 대형건물의 에너지절약시설화까지도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을 용자받을 수 있다. 또한 기금의 지원절차도 간소화되어 용자받은 후 제출해야하는 사업완료보고서 및 성과보고서 제출의무도 면제된다.

상공자원부는 이같이 산업체 및 건물의 에너지절약시설에 용자지원되고 있는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의 지원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용자지원지침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의 지원범위는 에너지절약사업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산업부문의 시설개체시와 소형건물 위주에 국한되고 있었다.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의 올해 지원규모는 1천5백43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7월말 현재까지 9백64억원이 용자됐다.

한전,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 설명회가 지난 9월 10일 삼성동 한전본사 대강당에서 열렸다.

신경제 5개년계획 기간동안 중소기업기술지원 부문에 1천1백억원을 지원키로 이미 밝힌 바 있는 한전은 이날 설명회를 통해 한전이 보유한 산업재산권 15건, 연구개발성과기술 3백28건, 컴퓨터 프로그램 2백18건, 기타 기술관련 자료 4만7천여종을 무상 제공키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력 강화와 자생력배양으로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자동화·정보화의 적극 지원과 한전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력 연구개발제도의 신설을 통해 한전이 보유한 R&D

자금 6백억원 및 연구개발 기술인력, 장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협력중소기업의 원활한 조업과 안정적인 생산설비 가동을 위해 전력공급설비 확충·보강에 5백억원을 집중투자해 공급선로 특별관리에 주력해 나가고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애로기술 타개를 위해 한전의 전문인력 파견을 통한 기술지도 실시 및 본사와 전국사업소 등 1백61개소에 중소기업기술지원센터와 상담창구를 설치 운영해 중소기업의 애로타개와 고충해결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상공부차관, 중소기업협동중앙회부처장을 비롯한 중소기업관련 기관, 단체 및 업계대표 등 1천여명이 참석한 이날 설명회에서 이종훈 한전사장은 『한전이 그동안 전력사업 추진과정에서 축적한 기술력과 연구시설, R&D자금을 전력용 기자재를 생산하는 협력 중소기업체에 이전하고 한전과 중소기업 기술공동체제강화에 목적을 둔 이같은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력확충과 조달물자의 국제개방화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시의적절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하고 『한전은 중간추진상황분석과 문제점 수정보완을 통해 동지원사업의 최대의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고 다짐했다.

765kV 송전기술 완전 국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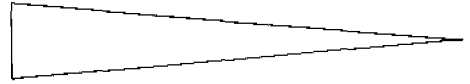
한전은 지난 9월 17일 전북 고창군 상하면 용정리 765kV실증시험장에서 심창생 기술본부장, 박태수 송변전사업단장, 박상기 기술연구원원장 등 내외빈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갖고 그동안 건설에 혁혁한 공을 세운 관계자들과 업체들을 포상했다.

이날 준공식에서 조성배 한전기술연구원과장이 상공자원부장관 표창을 이상탁·이동일 기술연구원과장이 각각 한전사장 표창을 수상했으며 현대건설과 효성중공업에 한전사장 감사패가 주어졌다.

실증시험장 건설에는 송전선로 건설을 현대건설이 변전설비는 효성중공업이 턴키베이스로 수주·시공함



전기계단신



으로써 초고압분야 기술의 자립화를 달성하는 계기가 됐다.

설계단계부터 기기제작 시운전에 이르기까지 국내 업체들이 기술력을 심분 발휘, 상용화가 되는 시점에 이르러서는 초고압분야의 대내외적인 경쟁력강화가 예상된다.

시공분야에서는 현대건설이 상설설계분야까지 폭 넓게 참여, 시공을 주도했으며 현장타설말뚝기 초공법이 도입되는 등 신공법이 적용됐다.

또한 철탑분야에서는 현대철탑이 2기의 강관철탑을 개발·납품, 앞으로 이 분야의 기술개발력 제고와 함께 수출까지 기대된다.

변전설비는 효성중공업이 3MVA용량의 765kV 변압기를 자체기술로 납품했으며 앞으로 5백MVA용량의 개발을 위한 준비를 갖췄다.

그러나 애자나 계측기 등은 주로 일본등지에서 수입·사용함으로써 이들 기기의 국산화가 요망되고 있다.

한편 한전은 실증시험장준공을 계기로 보다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며 업체들에게 연구개발을 독려, 국내기술에 의한 765kV 송전시대를 열어 나갈 방침이다.

상공부, 중전기 구매제도 대폭 개선

상공자원부는 중전기의 대수요처인 한전과 협의를 거쳐 현 한전의 구매제도 가운데 업체에로서항인 「물품 구입대금 현금지급비를 확대」등 총11개 항목의 중전기 구매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지난 10일 확정·발표된 동구매제도 개선내용에 따르면 지금까지 1억원까지만 현금으로, 초과시는 80% 어음을 지급하던 물품구매대금을 3억원까지는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3억원이상 6억원은 50%를 현금 지급한다.

또 물품구매 예시기간을 3년에 5년으로 연장하고 한국표준규격(KS)과 차이가 나는 한전 구매규격을 KS규격과 호환성있게 개선하는 동시에 개발시험과 재개발시험 면제품목을 30종에서 89종으로 확대하

고 구입물품의 검사제도도 업체에서 자체시험한 시험성적서로 대체하며 중간검사와 중복되는 검수시험은 시험성적서로 대체하는 등 대폭 개선된다.

금번 확정된 방안은 올해 1월 전기공업진흥회의 중전기 산업발전 연구회에서 업계의 의견을 수렴, 상공자원부에 건의한 것을 상공자원부와 한전간 협의의 거쳐 이루어졌다.

이에따라 50개업체 1천5백품목이 검수시험을 면제받게 됐고 시험면제 등으로 인해 연간 1백억원의 원가절감과 약 20%의 생산성 향상이 예상되는 등 국제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중전기, 각분야 전품목 ISO9001인증 획득

현대중전기(주) (대표·유재환)는 오스트레일리아 품질보증 공인기관인 SAQAS로부터 배전반류, 변압기류, 회전기류, 차단기류 등 4개공장의 각 분야별 전품목에 대해 국내 최초로 ISO 9001국제품질보증 시스템 인증을 취득했다.

지난 '90년 6월 국내 최초로 변압기공장이 ISO 9001을 취득한 현대중전기의 이번 4개 공장 전품목에 대해 ISO 9001 동시 취득은 국내최초의 획기적인 일이다.

지난 '87년 품질관리 대상 수상 및 '90년 국내최초의 ISO 9001인증 취득 등 품질관리에 힘쓴 현대중전기(주)는 동남아, 미국 등 세계 50국에 진출해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이번 중전기 전품목에 대한 ISO 9001인증획득으로 전공정을 고객의 입장에서 관리하는 총체적 품질경영시스템을 정착하게 되어 더욱 신뢰받는 제품을 공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 현대중전기(주)는 완벽한 품질보증 시스템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충족하는 최고 제품을 공급키 위해 주력을 다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금성기전, 전동공구 ISO9001획득

금성기전(대표 김희수)이 전동공구업체로서는 국

내 최초로 ISO 9001인증을 획득, 국산 전동공구 품질의 신뢰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금성기전이 취득한 ISO 9001인증은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국제품질보증모델 ISO 9000시리즈중 설계, 개발, 생산, 설비 및 서비스에 이르는 전 과정을 포괄하는 품질보증으로 ISO 9000시리즈중 최고의 등급으로 특히 이번 인증획득은 기계 및 전기분야의 품질검사에 있어서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독일의 TUV-CERT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금성기전은 ISO 9001인증의 획득으로 대내적으로는 ISO가 요구하는 품질관리 수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품질관리체계를 정비하고 품질관리 메뉴얼을 개정하는 등 자체품질관리시스템의 수준을 한 단계 높게 했으며 대외적으로는 국산 전동공구가 세계시장으로 진출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 금성기전은 이번 전동공구를 시작으로 송강기, PLC, 제어기기 등에 대해서도 ISO 9001인증을 획득할 계획이다.

는 일렉트릭사에 의해 개발됐다.

이 제어기는 시작, 멈춤, 제한제어까지 6종류의 전류 범위를 제공해 준다.

또한 앞면 패널은 엔지니어링 단위계에 어떤 전압이나 전류입력의 전환을 제공하는 배치 디스플레이 스케일링 및 소수점을 갖는다.

전력은 110/220VAC표준 또는 선택적인 24/48VAC와 8~32VDC이다.

4인치 스퀘어박스에 통할 수 있는 콘센트

미국 브리엔트 일렉트릭사는 최근 4중 콘센트에 제공된 2마운팅나사를 통한 4인치 스퀘어박스에 직접 통할 수 있는 콘센트를 개발했다.

이 콘센트는 NEC의 410-56(i)의 필요품에 부합하고 개별박스 커버의 필요성이 없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15, 20암페어, 125V에 사용이 적합하다.

기록장치 장착된 결점보호기 개발 시판

미국의 레이캠사는 모델명 「트레이스가드 277」이라는 접지용 결점보호기를 개발, 시판중에 있다.

이 제품은 직접 결점 보호를 위해 277V까지 전기 자동기록이 가능한 장치이다.

또 고성능을 갖춘 이 자동기록장치는 30mA에도 작동이 가능하다.

인적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누전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자동기록장치는 업계에서도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차단기 트립장치 개발

「모델410」 자동부하 캐패시터 차단기 트립장치를 최근 미국 타임 마크사가 개발했다.

이 제품은 동작하기 위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차단기들과 로크아웃 계전기에 트립펄 전력을 제공한다.

해 외 소 식

중국, 발전설비 대폭 확충키로

중국은 전력부족난을 덜기 위해 오는 2천년까지 1억kW용량의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중국전력공업부 조희성 차관은 「아직도 중국은 1억2천만명의 농촌 인구가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오는 2천년까지 1억kW이상의 발전소를 건설해 현재 80%수준인 전화율을 95%로 끌어올릴 계획이다」고 발표했다.

한편 중국의 발전설비용량은 지난해 1억6천6백만 kW용량의 발전소를 건설중에 있다.

프로그램 제어기 개발

프로그램까지 할 수 있는 제어기가 최근 미국 심